

공심 무조권(巫祖圈)과 무조신(巫祖神)의 재해석

임미나*

— <차 례> —

1.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공심 무가와 공심 무조권 고찰
 - 1) 공심 무조권
 - 2) 지역별 공심 무가 양상
 - 3) 공심 설화 내용
3. 공심 무가의 해석과 새로운 무조신격 문제
 - 1) 공심 무가의 해석
 - 2) 무조신으로서 공심 · 아황여영 · 바리공주의 비교
4. 결론

〈국문초록〉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해당하는 서부지역과 통영·거제에 이르는 남부지역에서 는 곳의 시작 부분에 특정 가사를 관용하여 불러 주목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대략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로다’를 근거리 시작할 때 부른다. 아왕 임금은 이름이 공심으로, 공심은 무당들의 무조신(巫祖神)이다. 공심 을 곳 시작할 때 부르는 것은 공심 무조권에서 공심을 무조신으로서 중요하게 섬 겠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교(巫敎)에서 일반적으로 무조신하면, 내륙의 바리공 주나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를 거론한다. 이에 비해 공심은 상대적으로 부 각되지 못하였고, 공심 무가에 대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공심을 부른 노랫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심 무가에 담긴 의미와 기능 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기존 무조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공심 설화를 통해 공심이 고려 출신 왕녀이고, 신병으로 인해 남산에서 득도하게 되었으며, 그 득도한 바를 무당·신도에게 전교하여 무조신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신이 될 수 없는 공심 무조권 세습무에게는 무병을 앓아 무조신이 된 공심을 중요하게 섬겼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조신의 의미는 남달랐을 것이다.

공심 무가 사설 중 ‘아왕 임금’은 무가 채록자들에 의해 ‘아황(娥皇)·아왕(我王)’으로 혼돈하여 쓰이나, ‘아왕’은 무조신인 공심을 부르는 것이므로, 우리 임금이라는 뜻인 ‘아왕(我王)’이 맞다. 참고로 ‘아황(娥皇)’은 중국의 아황여영에서 나온 것이다. 공심의 이름은 채록자들에 의해 ‘公心’·‘功心’·‘空心’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공심이 무조신이 된 후에는 사사로운 마음이 아닌, 무당과 신도들을 위한 ‘공적이고, 공평한, 힘쓰는 마음’으로 무교를 전교하였으므로, ‘公心’이나 ‘功心’ 모두 공심 이름에 적합하다. 또한, 공심이 불교적인 수양 방법인 공심(空心)으로써 득도한 것으로 본다면, ‘空心’이란 이름도 틀리다 할 수 없다.

‘절하지요’는 기존 무가집에서의 ‘절(寺)하지요’ 즉 ‘사찰하지요’가 아닌, ‘제례주(祭禮主)’를 뜻한다. 공심이 공심 무조권 제례(祭禮)에 임금(주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곳을 시작하여야 무조신인 공심을 곳 처음에 부르는 이유와 부합한다. ‘남산은 본이다’에서 남산은 무조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본향이 된 곳이다. 산은 예로부터 숭배 되어온 곳으로, 고대 신화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이 쩌의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과 상통하며, 고대에는 왕족의 시조를 낳는 여성 산신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심이 왜 산에서 무조신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남산’은 서울 남산에 대표적 곳당인 ‘국사당’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 남산은 집터에서 가까운 앞산으로서 북쪽의 뒷산 보다 삶이 더 묻어난다. 남산에서 무조신이 탄생하고,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죽은 후 북망산 간다는 뒷산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 듯하다.

무조신으로 잘 알려진 바리공주와의 비교를 통해 공심의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 바리공주는 주로 사령제에서 불리고, 무조신 이외에 오구신, 직녀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저승세계를 주관하며 재생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오구신의 성격이 많이 보인다. 반면, 공심은 무조신으로서 곳 초압에 나타나고, 현세 세계를 주관하며 전교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무조신의 모습으로만 등장한다.

지금까지 논한 것을 토대로 공심 무가를 해석하면, 기존의 ‘아왕(我王 혹은娥

皇) 임금아, 공심(公心·功心 등)은 절하지요(절에 주요 등) 남산이 본이로다.’는 ‘아왕(我王) 임금아, 공심은 제례주(祭禮主)요, 남산이 본(本)이로다.’ 즉 ‘우리 임금아, 공심은 우리 제례(祭禮)에 임금(주인)이요, 남산이 본향(本鄉)이다.’라고 이해된다.

한국 서남부 무교에서 무조신 공심을 굿 처음 시작할 때 노래하여 의식의 중요성을 더하고, 무조신을 부름으로 해서 무교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공심 무가는 신에게 굿 하는 현재의 공간·시대를 고할 때 무조신 공심의 내력부터 불러 무교의 역사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동안 공심 무가를 관용구나 허두(虛頭)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나, 여러 의미가 함축된 공심 무가는 이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서남부 지역에서 실질적인 무조신은 공심이었고, 그 지역에서 공심이 무조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 연구에서 무조신하면 바리공주를 떠올리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문제라 여겨진다.

주제어 무조신(巫祖神), 공심, 무가(巫歌), 바리공주, 아황여영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서울·경기도·충청남도·전라도·경상서남·제주도 무교에서는 굿거리 시작할 때 특정 가사를 관용하여 부른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로다’를 굿거리 처음에 노래한다.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로다’는 자주 노래하기 때문에 관용구¹⁾라 하며, 굿거리 처음에 부르기 때문에 허두, 초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9-1: 濟州道 北濟州郡 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389쪽.

압,²⁾ 단연주³⁾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채록된 무가집을 참고하면, 무당들은 ‘공심이 왕의 딸이었고, 무병(巫病)에 걸려 임금이 공심을 남산으로 쫓아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남산을 본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며, 중요 굿거리 초두에 공심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그녀가 무조신(巫祖神)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⁴⁾

무교에서 일반적으로 무조신하면, 내륙의 바리공주나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를 거론한다. 이에 비해 공심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바리공주나 초공본풀이는 이야기가 긴 서사무가 형태이나, 공심을 부른 무기는 사실이 짧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리공주는 서울에서는 무조신이 되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무조신으로 좌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공심보다 무조신으로 더욱 알려져 있어 무조신인 공심을 부른 무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심과 관련된 연구는 일제강점기 학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저술한 『무조(巫祖)전설』과 1970년대 김정업이 논한 『무조아왕공주고』와 『아왕새신도사고(我王賽神禱詞考)』⁵⁾가 있다. 아키바 다카시는 『무조(巫祖)전설』 가운데 고려공주 공심을 비롯하여 중국공주 아황여영(娥皇女英)·바리공주 등을 ‘왕녀무조전설(王女巫祖傳說)’에서 논하였다. 충남 논산과

2) 초압은 판소리 첫머리 시작하는 대목을 말함인데, 무가(巫歌)에서도 초압이 더러 쓰인다고 함. 이보형, 『무악장단고: 전북 당골굿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33쪽.

3) 단연주는 각 굿 제차(祭次)에 앞서 서언격으로 부르는 무가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1-6: 京畿道 安城郡 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86쪽.

4)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진도씻김굿』 제34집, 국립국악원, 2003, 201쪽. 이영금, 『전북 씻김굿: 전금순의 무가』, 민속원, 2007, 82쪽.

5)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저·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29-47쪽. 김정업, 『무조아왕공주고: 옥과 성황당의 연기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7집, 한국민속학회, 1974, 67-75쪽. 김정업, 『아왕새신도사고(我王賽神禱詞考)』, 『한국언어문학』 13권, 한국언어문학회, 1975, 221~231쪽.

공주 지역에서 고려의 왕녀를 무조로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고, 통영·목포·순천·전주에서 채록한 고려 공주 공심에 관한 설화와 통영·순천·나주·목포·남원·서울의 공심 무가⁶⁾를 수록하였다. 아키바 다카시의 연구는 무조신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여러 지역의 공심 무가 사설과 더불어 공심 설화 내용을 수록하여 짧은 사설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공심 무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고려의 왕녀 즉 아왕공주와 공심공주를 따로 서술하여 아왕과 공심이 다른 인물인지 동일인지 혼란을 주고, 여섯 지역의 공심 무가 사설만을 소개하고 있어 공심 무가가 가창된 구체적인 지역과 지역에 따른 양상에 대해 알기 어렵다.

김정업은 『무조아왕공주』에서 전남 곡성 옥과면에서 전해진 공심에 관한 내용을 현장조사 하여 공심 설화를 채록하고, 공심이 그 지역 출신 인물인 조통과 결합하여 두 신이 성황사에 모셔져 옥과의 수호신으로 받들여졌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공심이 실존인물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왕공주의 실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왕새신도사고(我王賽神禱詞考)』에서는 추엽류이 공심 가사가 지역적인 변형과 와음이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와전된 가사를 유사한 현대국어로 억지로 맞추어 풀이했으며, 아왕(我王)과 공심(公心)을 별개의 인물로 단정함으로써 이 가사에 나타난 아왕과 공심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저자는 공심이 조통과 함께 마을신으로 섬겨지고, 공심 공주의 유해가 묻혔다고 전해지는 옥과 지역의 공심 무가를 가장 원형에 가깝다 여겨, 그 지역의 공심 무가를 대상으로 공심 설화와 『妙法蓮華經』·『杜詩諺解』에 근거하여 공심 무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김정업의 연구는 공심 설화 전승이 단절된 상황에서 옥과면에 전해진 공심 설화와 공심 무가를 기록으로 남겼고, 처음으로 공심 무가를 깊이

6) 무조신인 공심을 노래한 사설을 본 연구에서는 ‘공심 무가’라고 사용함.

있게 연구하려 노력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공심에 관한 설화와 무가가 전승됐음에도 옥과만을 대상으로 공심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저자가 밝혔듯이 공심에 대한 것이 비실재적인 현상이 가해졌다고 하면서도 공심의 실존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실존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심 무가가 갖는 의미나 기능 등을 해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공심 무가를 『妙法蓮華經』과 『杜詩諺解』로써 해석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두 자료를 통해 공심 무가를 해석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도 조선시대 언어로 정정해야한다는 저자의 생각 때문에 두 자료를 참고한 듯한데, 공심 무가를 해석함에 있어 자료의 타당성과 그 자료에 의한 공심 무가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심 무가가 전승된 지역의 현황과 양상을 살펴보고, 공심 무가에 담긴 사상, 종교, 문화, 신화 등을 고려하여 공심 무가를 해석, 공심 무가가 지니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심을 무조신으로서 현재까지 노래하고, 굿 시작할 때 가창하는 점 등이 무교에서 공심 무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심이 무조신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공심 무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공심 무가 즉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로다’에 대해 논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무가 가운데 공심이 등장하면서 절과 남산, 본이라는 내용이 있는 가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가령 평양 무가에 ‘공심 데일은 강남 제비왕(와) 전라는 나주가 금성이 본이올습니다’라는 사설이 있어 평양에서도 ‘공심’이란 단어가 보이나, 공심에 이어 나오는

가사가 공심 무가와 다르다.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남산은 본이 요’라는 사설이 쓰이나, 공심 무가의 핵심인 공심이 등장하지 않고, 절을 부르지는 않는다. 황해도 곳에서도 아왕(我王) 혹은 아황(娥皇) 임금을 부르나, 황해도의 아왕 임금은 항상 ‘만세’를 같이 부르며, ‘아왕만세’를 노래할 때에는 ‘공심·절·남산·본이다’라는 가사가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심 무가와 사설 내용이 차이가 있는 평양·강원도와 경상도, 황해도의 ‘아왕만세’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2장에서는 한국 무가를 채록한 사설집⁸⁾과 아키바 다카시가 정리한 공

- 7) ‘아왕만세’ 어원에 관해 유봉인의 『어우야담』에서 ‘지금 무당들이 아왕만수라는 것은 중국 요동의 동령위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다. 고려 때 충선왕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심양의 왕이 되었을 때 따라간 많은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심양 동령위에서 살았다. 그곳 풍속에는 신에게 제사할 때 반드시 ‘아왕만수’를 부르고,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먼저 우리말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그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이능화 저·서영대 역, 『조선무속고』, 창비, 2008, 259~261쪽.
- 8) <표 1>의 번호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①적송지성·추엽룡,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上』, 동문선, 1991, 15쪽. ②김태곤, 『한국무가집1』, 집문당, 1971, 60쪽. ③최길성, 『한국무속지2』, 아세아문화사, 1992, 304쪽. ④하주성, 『경기도당국의 무가』, 경기문화재단, 2000, 296쪽. ⑤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59쪽. ⑥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1-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86~7쪽. ⑦김태곤, 『한국무가집1』, 106~7쪽. ⑧최길성, 『한국무속지1』, 112쪽.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5-4』, 416쪽. ⑩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159쪽. ⑪문화재관리국, 『출포유악』, 『중요무형문화재 종합조사보고서』 제11집, 문화재관리국, 1970, 424쪽. ⑫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무가』, 101쪽. ⑬이영금, 『전금순의 무가: 전북 셋김굿』, 민속원, 2007, 82쪽. ⑭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무가』, 169쪽. ⑮김태곤, 『한국무가집3』, 331쪽. ⑯김태곤, 『한국무가집2』, 46쪽. ⑰최길성, 『한국무속지1』, 104쪽. ⑱적송지성·추엽룡, 『조선무속의 연구下』, 25쪽. ⑲김정영, 『我王賽神禱詞考』, 『한국언어문학』 13권, 한국언어학회, 1975, 224쪽. ⑳김태곤, 『한국무가집2』, 15쪽. ㉑김정영, 『我王賽神禱詞考』, 224쪽. ㉒적송지성·추엽룡, 『조선무속의 연구下』, 25쪽. ㉓적송지성·추엽룡, 『조선무속의 연구下』, 24쪽. ㉔이경영의 『셋김굿 무가: 순천 셋김굿을 중심으로』, 박이정, 2000, 114쪽. ㉕김태곤, 『한국무가집3』, 400쪽. ㉖적송지성·추엽룡, 『조선무속의 연구下』, 25쪽. ㉗김태곤, 『한국무가집2』, 101쪽. ㉘한국정신

심 설화를 바탕으로 공심을 부르는 지역을 지도로써, 지역별로 정리한 공심 무가 내용과 공심 무가를 노래한 곳거리를 표로써 정리하겠다. 그래서 공심을 부르는 지역의 분포와 지역별 공심 무가 양상, 어떠한 경우에 공심 무가를 부르는지에 관해 알아보겠다. 이어서 공심을 부른 노랫말을 좀 더 이해하고자 공심 설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아키바 다카시는 여섯 지역의 공심 무가를 제시한 것과 함께 충남 공주·전북 전주·목포·순천·경남 통영 지역의 공심 설화를 채록하였고, 김정업은 전남 옥과 지역의 공심 설화를 정리하였다.⁹⁾ 공심 설화는 현재까지 연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승이 끊긴 것으로 생각되며, 무당들의 구전으로만 간략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연구자에 의해 채록된 공심 설화는 공심 무가를 이해하는데 긴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두 연구자가 채록한 공심 설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각 지역 공심 설화의 골자가 되는 내용으로써 공심의 출신과 무조신이 되는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공심 무가의 사설을 해석하여 공심 노랫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며, 공심과 아황여영·바리공주를 비교하여 공심에

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6-6』, 176~7쪽. ②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6-12』, 395쪽. ③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진도씻김굿』 제34집, 국립국악원, 2003, 53쪽. ④박주언 편집, 『에이 짝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 뿌리깊은 나무, 1991, 168쪽. ⑤김태곤, 『한국무가집2』, 124쪽. ⑥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6-5』, 633쪽. ⑦김태곤, 『한국무가집2』, 175쪽. ⑧김만석, 『전남 동남부 지역의 무속음악고』, 『민속학연구』 제7집, 민속학회, 1999, 332쪽. ⑨적송지성·추염룡, 『조선무속의 연구下』, 24쪽. ⑩이소라, 『치리섬 별신제』, 『문화재』 제17호, 문화재관리국, 1984, 36쪽. ⑪김선풍, 『남해안별신굿: 신가·가면극·인형극』, 박이정, 1997, 37쪽. ⑫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9-1』, 293쪽. 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9쪽.

9) 심우성 율김, 『조선무속의 연구下』, 동문선, 1991, 22~25쪽. 김정업, 『무조아왕공주고: 옥과 성황당의 연기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회』, 71~72쪽.; 김정업, 『아왕새신도사고(我王賽神禱詞考)』, 『한국언어문화학회』, 228~229쪽.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아황여영과 바리공주를 살펴보는 이유는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무속의연구下』 중 ‘왕녀무조전설(王女巫祖傳説)’에서 아황여영의 아황공주, 아왕공주의 공심, 바리공주를 같이 다루고 있어 이 세 종류의 공주가 같은 성격의 신으로 혼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염두에 둘 점이 있다. 첫째, 무가에는 종교·사상·신화·문화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는 공심에 대한 실재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공심 무가에 담긴 사상·신화·문화적 맥락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공심 무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채록자가 지닌 생각과 지식이 공심 무가 사설을 기록할 때 반영되어 어떤 연구자가 정리하였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무가 사설이 바뀔 여지가 있다. 구전으로 전해져 와전될 가능성이 많은 무가 가사가 기록하면서 한 번 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무가 가사를 해석하려 한다.

2. 공심 무가와 공심 무조권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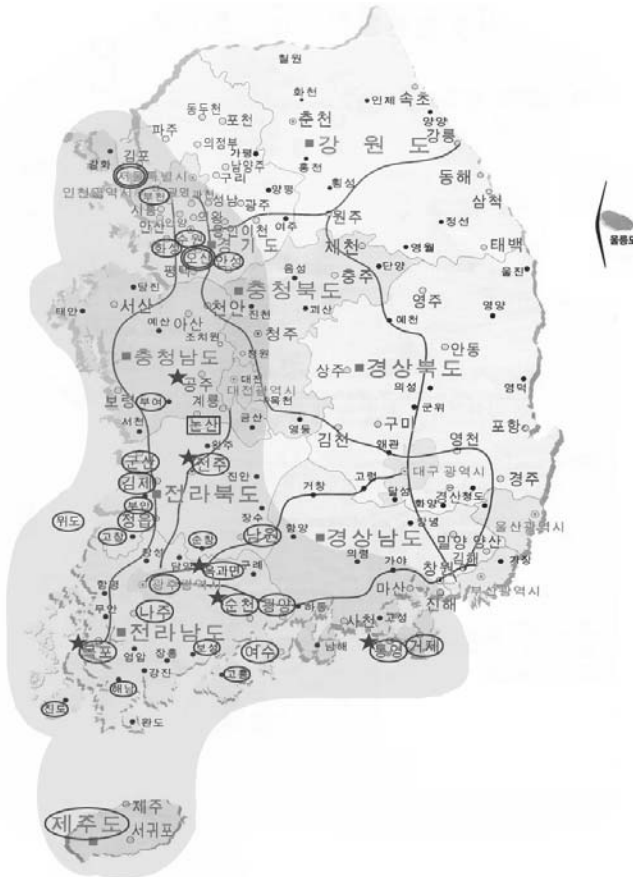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공심 노랫말을 분석함에 앞서 공심 무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심을 부르는 지역 분포와 각 지역별 공심 무가의 양상, 그리고 공심 설화를 통해 공심이 어떠한 경위로 무조신이 됐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심 무조권

공심을 부르는 지역은 한국 무가를 정리한 자료집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국 무가집에서 공심을 노래한 지역은 서울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서부 지역과 통영·거제의 남부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지도에서 ○로 표시하였다. 참고로 □로 표시한 논산은 한국 무가집에서 공심 사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아키바 다카시에 의해 논산 무당이 중국의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녀를 무조로 섬긴다는 내용이 밝혀진 지역이다.

〈그림 1〉 공심 무가 지역 분포



지도에서 나타난 공심을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세습무계이다.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세습무계 지역은 무가의 음조직이 육자배기토리가 주를 이루고 시나위 반주를 사용하여 육자배기토리권 혹은 시나위권이라고도 하여 문화권이 동일하다.¹⁰⁾ 육자배기토리권은 다시 자주 사용하는 장단에 따라 경기남부의 도살풀이권, 충남전북의 살풀이권, 전남의 동살풀이권, 경상서남의 불림권으로 분류한다. 이렇듯 육자배기토리권 안에서도 문화권이 나누어지는 영향 때문인지 ◎로 표시한 서울과 오산은 공심과 더불어 아황여영(娥皇女英)이 거론된 곳으로, 아래 지역과 달리 중부 지역에서는 공심과 아황여영이 공존한다. ★로 표시한 곳은 아키바 다카시가 공심 설화를 기록한 지역인데, 중부 지역을 제외한 아래 지역에서 채록되었다.¹¹⁾

지도를 통해 공심을 노래한 지역을 알 수 있듯이 공심 무조권은 한국 서남부 지역이며, 주로 세습무의 육자배기토리권에 속한다. 이것은 거의 동일한 문화권에서 공심을 노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세습무의 무당들이 공심을 불렀다는 점에서 강신무와 달리 신이 될 수 없는 사제자인 세습무에게 무조신의 존재는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지역별 공심 무가 양상

지역별 공심 무가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 지도에서 표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심 무가 내용과 공심 무가 사실이 보이는 곳거리를 표로 정리하였다. 참고로 표는 서울부터 경기도·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도 순으로 기술하였다.

10) 현재는 세습무가 쇠퇴하고 강신무로 대체된 곳이 많다.

11) 공심 설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겠다.

〈표 1〉 지역별 공심 무가 양상

지역명	공심 무가 내용	곳거리
서울	①나라(國王)로 나라(國王)로 공심(公心)은 절이웁고, 절이 남서가 본이로소이다.	<바리공주>
	②나라(國)의 공심(功心)은 절이요, 남서(南西)가 본(本)이로성이라. 강남 대한민국이시고 이 나라 조선국으로 성이라.	진오귀 중 <말미(바리공주)>
	③나라로 나라레 공심은 절이없고 저르느 남서가 본이로소이다. 강남은 대한민국이고 해동 조선국이온테 절이 알으소사.	<말미>
한강 이남 경기도	④공심은 제례주(祭禮主)요 남산이 본이로구나. 이 집터를 골라잡으시니 삼십삼천 위에 올라 허궁천 비비천 삼하도리천 열사왕 거동 마련하고.	조환춘의<1.부정청배> · <균웅굿>, 오수복의 <5.시루굿> · <서해대교 살풀이 고사>, 경기도 안택굿 중 <1.부정> · <시루굿> · <균웅굿>
화성	⑤공심(功心)은 다 절에 주요, 제례 남산 본(本)이로고. 집터 골러 잡으시니 삼에는 삼천수, 내리 떠 잡으시니 이십은 팔일성수.	재수굿 중 <3.안시루>
안성	⑥공심언두(空心言頭 ¹²⁾)제례지야 제례남산 본이로구나. 집터잡아 골르시니 삼현은 삼천수요 서른세날 하늘마련.	<단연주> · <제석굿(불사굿)> · <조상굿>
충남 부여	⑦아환님금[娥皇님금] 굿이로다. 공심 절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팔만사천 사두역[四都城]이 대월은 설흔 날이 소월은 이십구일이며	성주굿 중 <2.당산굿> · <조상굿> · <손님굿>
전북 전주	⑧양황님금이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팔만은 사둔연 대는 석가임의대요.	<2.당산마지>
군산	⑨해원이고마 동심은 저로치오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구역이시니 팔말은 사둔년하.	<용왕풀이> · <서낭풀이> · <조왕풀이>
김제	⑩양오 임금아 공심은 절러지오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팔만은 사둔년아 일년은 열두달 과년은 열셋달이요 소법은 이십구일이요 대법은 서른날이다.	<1.성주굿>

12) 두의 '頭'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쓴 것임.

부안	<p>⑪아왕 임금아 공심은 저러지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팔만은 사또년으 법은 정법이요 왕은 이씨왕이로구나 대는 석가님의 대요 대월은 설혼날 소월은 29일.</p>	<p>시금굿 중 <1.조왕발원> · <철옹굿> · <지신발원> · <서낭석> · <칠성풀이> · <손님굿> · <장자풀이> · <성주굿> · <오구시금굿> · <오구풀이> · <중천맥이>, 도신굿 중 <계석굿></p>
위도	<p>⑫왕아 임금아 공심은 저러지요 남산은 본이로다. 팔만은 사또년 일년은 열두달 과년은 열석달. 대는 석가님의 대요, 왕은 이씨왕이요 법은 정법이요.</p>	<p><1.성주굿></p>
정읍	<p>⑬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러지요. 남산은 본이시면 조선은 국이시오. 팔만은 사두석의 태고라 천황씨는 복덕으로 왕하실제.</p>	<p><2.조왕굿> · <성주굿> · <지신굿> · <조상청문></p>
	<p>⑭아왕 임신아 공심은 저러지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시고 팔만은 사두석 일산 생겨 이중천 사마절채 사중유혼 오신 황화 육직 복덕 치라 절명 팔진고혼 생기시고, 천지는 언지 나며 일원은 언지 생겼던가.</p>	<p>조금례의 <1.성주굿> · 박금육의 <성주굿> · 신귀녀의 <성주굿> · 전금순의 <내림 중 치국></p>
고창	<p>⑮아황(我皇)임금아 공심(功心)은 절의주요, 남산(南山)은 본(本)이로다. 조선은 국(國)이요, 팔만(八萬)은 사두(四道)연에 금년은 열에 두달 과년은 열에 석달 소월은 이십구일 대월은 설혼날요.</p>	<p>씨금굿 중 <1.웃머리></p>
순창	<p>⑯아황(我皇)임금아 공심(功心)은 절[寺]이 주요, 남산(南山)은 본(本)이로다. 조선은 국인디 팔만은 사두세겨 오늘날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다 이씨대한 가중인디.</p>	<p>축원굿 중 <1.맨드름> · <계석굿>, 오구굿 중 <오구혜원> · <고풀이></p>
	<p>⑰아황임금아 공심은 저르기로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테긴데 천만은 사도세겨 오늘날은 다름이 아니고라 정씨대한 가중인테.</p>	<p><2.성주굿></p>
남원	<p>⑱아왕(我王) 임금은 공심은 저러지요, 남산은 본(本)이로다.</p>	
전남 곡성 옥과면	<p>⑲아왕임금아 공심은 절어지여 남산은 본이로다.</p>	

광주	㉑아황(我皇)임금이 공심(功心)은 절[寺]이오, 남산(南山)은 본(本)이로다. 조선은 국이오 팔만은 사두세교, 세경 본도 한양 본도 서울이오. 해동조선 전라 좌도요, 관은 대목안이 올 습니다.	오구굿 중 <1.안당굿>
	㉒아왕임금이 공심은 절하지여 남산은 본이로다.	
나주	㉓아왕 임금은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로다.	
순천	㉔아왕 임금은 공심(公心)은 절[寺]에 주고, 남산(南山)은 본이라.	
	㉕앙와신아. 임금이 공심은 절해주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웁고 팔만은 사두서경이라. 개성도 본도. 서울집터 잡어 삼십삼천 내리떠올려 이십팔수 스물여덟달 마련허실적에.	박경자 창본 셋김굿 중 <3.안당>, 김수정의 <안당>, 한생심 창본 오구굿 중 <오구풀이>
광양	㉖아와 임금이 공심은 절오 주고 남산은 본이로다. 저승은 국이시면 팔만은 사두세경두 한양오 서울이오 본도 서울이라. 나리 굴러 잡터 잡아 삼십삼천 이십팔수	<삼신풀이>
목포	㉗아왕 임금 왕공심(王公心)은 절러지요, 남산은 본이로다.	
	㉘아황(我皇)임금이 공심(功心)은 절에 주고, 남산(南山)은 본(本)이구나. 조선은 국이요, 팔만은 사두석[四道世界]요, 한양도읍 서울이라. 집터잡어 삼십삼천이오.	축원굿 중 <1.안당>
신안	㉙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달마는 사대 개경 서울이라 개성부 서울 집도 잡으시고 삼십삼천 나리들 굴렀으니.	임자면의 <선영 조상굿>, 장산면의 <안당굿> · <초가망상>
보성	㉚왕아 임금이. 공심은 절해주요. 남산은 본이로다. 팔만사도 서경. 한양도 서울이요 개성도 서울이라. 자시에도 하늘이 생기시고	<조앙굿>
진도	㉛아신이 공심은 절어지고 남의남산 본이로구나. 팔만의 사도세경이요 한양도서울이요 본 서울 지성마련하옵실적.	이완순의 <2.안당>, 김대례의 <초가망석(신노래)>
	㉜(왕아) 임신아! 공신은 저러지고 나무남산 본이로세. 조선은 국이웁고 팔만은 사두세경 세경은 서울이요 한양도 서울이요.	시김굿 중 <1.안당>, 기타 중 <혼맛이>

해남	㉔영신(迎神)아 예에- 공심(功心)은 절[寺]의 주고, 남산(南山)은 본(本)이로다. 조선은 국(國)이고, 팔만사두세경(八萬四道細徑)두 서울이요, 한양두 서울이선가.	씨꿈굿 중 <1.안당굿>, 근원손 중 <근원손>
	㉕일신공심은 절오지고 남산본이 공은 조선은 국이시고 팔만은 사도세경 한양도 서울이요 개성국 본서울은 집터잡어.	<비손 노래 초합>
고흥	㉖아황(我皇)임금아 공심(功心)은 절[寺]에 주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오 팔만은 사두 세경(西京) 서울 한양두 서울 개선국은 본도 서울.	씨꿈굿 중 <1.안굿>, 기타 중 <삼신풀이>
여수	㉗왕아 인은 금화는 고운 신은 저것이요 남산이 본이로다. 조선은 피가 없고 팔만고 색경이며 서울도 집터 잡아.	<용왕맞이굿(제석굿)>
경남 통영 거제	㉘아왕 임금아 공심이 제주(祭主)요, 남서(南西)는 본이로다	
	㉙西天國 三河世界 王我임금 公心아절하주요 御羅大臣이야 南山은 본이로다. 朝鮮은 國이로다 八萬은 四斗世界 나라도 열두나래 施衛諸國이야 奎羅道場은 五十三官이른이 한가오야 安全道議臣下大道議야 慶尙道場은 七十一條 安全道議 大道議야.	<七星本解詞>
	㉚임금공심 절하주요 남산은 본이로나. 조선은 국이로다 팔만은 사도세계 나라도장 열두나래 국도 열두국이로다 십이제국이야.	<부정굿> · <가망굿 · 제석굿> · <선왕굿> · <군웅굿>
제주도	㉛공서는 가서는 공웨다. 제저지 남산은 본은 갈 립기는 인보역 서준낭 서준 공 말쌈전 은전히 여쭙기는, 날이웨다.	<초감제><세경본풀이><액막이><날과 국 섬김>
	㉜공스(恭神)는 가서는 제저 남산 본은 갈라 인보역 서준낭 서준공스 말쌈전 신전의 올림긴 저는절수읍뉘.	큰굿 중 <4.추물공연> · 불도맞이(中 상단 숙여 燒紙 사름) · <초공본풀이> · <이공본풀이> · <삼공본풀이> · <시왕맞이(中 체스본풀이)> · <세경본풀이> · <문전본풀이> · <각도비님(中 칠성본풀이)> · <각도비님(中 조왕비님)> · <작은굿 중 귀양풀이 중 초감제> · <문전비님> · <멩감> · <산신멩감> · <할망비님> · <1 당굿 중 날과 국섬김>

표에서 공심 무가 노랫말은 ‘공심은, 남산은 본이다’ 등으로 쓰이나, 지역에 따라 가변적이다. 공심 무가가 널리 사용된 충남·전라도·경남에서는 공심 무가를 ‘아왕(我王) 혹은 아황(娥皇)임금아’로, 서울은 ‘나라(國王)’로 불러, 공심 무기는 대체로 왕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해남에서는 ‘아왕 임금아’가 아닌 ‘영신(迎神)아’로 부르고 있다. 공심은 公心·功心 등으로 한자로 표기되기도 하며, 예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공신(恭神)이라 하였다. ‘공심은’에 이어 나오는 ‘절하지요’는 다양한 형태가 보이는데, 크게 ‘절하지요(저라지요·저리지요 등)’와 ‘절에 주요(절의 주요·절이 주요)’ 두 형태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저’라고 하였으며, 특히 경기도당곳의 ‘제례주(祭禮主)’와 남해안별신곳의 ‘제주(祭主)’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공심 무가를 부르는 곳거리는 지역이나 무당에 따라 유동적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심 무가는 한 곳거리에서만 부를 수도, 여러 곳거리에서 노래할 수도 있으며, 부안이나 제주도에서처럼 거의 매 곳거리에서 공심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심 무가를 첫 번째 곳거리나 두 번째 곳거리에서 불러 곳 초반에 노래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는 공심 무가가 죽은 망자를 위한 진오귀굿 중 <바리공주>에서만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도 무가 자료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울에서만 바리공주가 무조신으로 좌정하기 때문에 공심이 바리공주와 같은 무조신 계열이라 무조신 무가에서 부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울이 상대적으로 아래 지역에 비해 공심 무조권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공심 무가를 중요한 곳거리에서 가창한다는 것에 따라 서울 진오귀굿에서 바리공주가 중요한 곳거리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

공심 무가에 이어서 굿을 하는 공간·시간에 대해 부른다. 이도 관용구

처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선은 국(國)이요, 팔만(八萬)은 사두, 대[時代]는 석가님의 대요…’ 혹은 ‘이 집터를 골라잡으시니 삼십삼천 위에 올라 허궁천 비비천 삼하도리천…’ 등을 노래한다. 팔만과 사두는 불교의 ‘팔만사천(八萬四千)¹³⁾’과 ‘사두(Sindhu의 음사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삼십삼천·허궁천·비비천·삼하도리천도 불교의 삼십삼천(三十三天)·허공천(虛空天)·비비상처(非非想處)·도리천(忉利天)이다. 단순히 굿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거시적 차원의 공간·시간을 언급하며, 이는 불교적 세계관으로써 설명한다. 이어 대부분 우주·만물 등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공심 무가가 우주론에 관한 내용과 함께 부르고, 공심 무가를 제일 먼저 가창하는 점에서 공심 무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공심 무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이 본이로다.’ 형태이고, 중요 굿거리에서 부르며, 우주론적인 내용과 더불어 굿 첫 거리에서 시작시 노래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서울과 제주도는 그 이외에 지역과 다른 특징이 보이는데, 육자배기토리권 세습무에 의해 전승된 것이 서울이나 제주도로 전해지면서 두 지역에서 공심 무가 내용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공심을 부른 노랫말은 그 길이가 짧아 여전히 공심 노랫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은 공심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공심 설화 내용

공심 설화가 채집된 지역 중 전북 전주·전남 옥과·경남 통영의 기록

13) 팔만(八萬)은 팔만사천(八萬四千)의 약어. 팔만사천은 불교에서 수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 말. 김길상, 『불교대사전』, 흥법원, 1998, 2667~2668쪽.

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공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 충남 공주는 내용이 가장 짧은 공심에 관한 정보가 미약하고, 다른 지역과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전라도와 경남 통영의 공심 설화 내용이 공심을 이해하는데 더욱 참고가 되는데, 여섯 지역의 공심 설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충남 공주** : 공주 지방의 무녀는 고려의 왕녀인 아왕부인(我王夫人)을 무조(巫祖)로 하고 있다. 부인은 생전에 몹시 무(巫)를 좋아했으므로 무당이 부인의 복장을 하게 되었고, 아왕부인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전북 전주** : 전라남도 전주 읍내와 그 부근의 무가(巫家)는 조선 상대(上代)의 왕자인 항왕제(項王帝[男神])와 그 딸인 공심현(公心軒[女神])을 주신(主神)으로 받든다. 왕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신병이 나서 부왕(父王)이 방에 가두었으나, 이 방에 출입하던 시녀들까지도 왕녀에게 감화를 받아서 기도법을 배워 병과 재액을 없앴다. 그래서 3년 후 왕은 왕녀의 감금을 풀어주어 그 뜻에 맡기게 되었고, 이 시녀들이 기도법을 다른 여자들에게 전해 주고 해서 온 조선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 **전남 옥과** : 아왕공주(我王公主)는 고려왕의 왕녀로 본명을 공심(公心)이라 하였다. 공주가 사랑하는 조통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자, 병이 들었고, 부왕(父王)이 이런 공주를 영험한 산신령이 있는 남산(南山)으로 보냈다. 공주는 그곳에서 기도(祈禱)와 가무(歌舞)로써 병이 나았고, 남산을 나와 득도한 무속을 남도각지에 전교하였다.

· **순천** : 고려의 왕녀가 귀신이 씌자 왕이 남산에 집을 짓고 이곳에 두었는데, 중이 왕녀에게 불교를 가르쳤던 것이 무녀의 시작이 되었고, 불(佛)은 대가(大家), 무(巫)는 소가(小家)라 칭하게 되었으며, 불과 무는 본가(本家)와 분가(分家)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다.

· **목포** : 왕녀 공심(公心)이 병이 나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여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고 하므로, 왕이 이것을 시험해 보고자 입 속에 밤을 넣고 병에

걸려 위독하다고 속이고 기도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왕녀는 이것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걸 꿰뚫어 보고 입 속에 밤이 들어 있는 것을 간파했으면 서도, 그것이 나중에 진실로 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자 과연 왕 의 턱이 부풀어 올랐으므로 왕녀가 남산의 신에게 제사지내 이것을 낮게 했 다고 하는 것이 무녀의 원조가 되었다.

· **경남 통영** : 옛날 왕녀 공심(公心)이 정신광란(精神狂亂)을 일으켜 왕 이 크게 노한 나머지 경성(京城)의 남산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왕녀가 형 어라만수[於羅瑕萬壽]와 동생 어라대신[於羅瑕大神]을 낳았다. 이 형제들 은 각각 딸 네 명씩 낳아 팔도(八道)에 한 사람씩 파견하였는데, 대대로 어 머니가 행했던 신도(神道)를 행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을 딸들에게 유 언하였다.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공심이 난심 혹은 정신병에 걸린 것은 무병 (巫病)을 말함이고, 산 속 등에 숨어서 속세와 격리하여 신통하다고 하는 등은 무당이 되기 위한 입무과정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⁴⁾ 여기서는 개 인이 무당이 되는 과정보다 ‘무조신’인 공심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겨, 공심 설화를 통해 공심의 출신과 무조신이 되어가는 과정 을 보도록 하겠다.

여섯 지역 공심 설화를 보면, 지역에 따라 공심 설화 내용이 차이가 있 다. 그러나 이야기의 골격은 비슷하다. 여섯 지역 공심 설화는 무교에서 공심을 부르게 된 이유이자, 공심을 무조신으로 섬기게 된 유래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공심의 출신이 고려 왕녀라는 점도 같은데, 다만 충남 공주는 공심이란 이름이 없고, 아왕부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아왕부인의 ‘아왕’이 공심 무가의 ‘아왕’과 같고, 아왕부인이 고려 왕녀라

14)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저·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39쪽. 김정업, 『무조 아왕공주고: 옥과 성황당의 연기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회』, 제7집, 74쪽.

는 점에서 공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는 공심의 출신을 ‘고려’가 아닌 ‘조선 윗시대[上代]’라 한 점은 다르나, 조선 윗시대에는 고려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것과 그 맥락이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니다. 공심 설화에서 공심의 이름과 출신 이외에 무조신이 되는 과정도 알 수 있다.

공심은 충남 공주와 목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신병에 든 것으로 묘사된다. 신병은 공심이 무조신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다. 신병이 든 공심을 부왕이 남산에 보낸다. 그 곳에서 공심은 기도나 가무 등을 익혀 병이 낫는다. 남산은 바로 공심이 득도한 장소이다. 예외적으로 전주에서는 공심이 방안에서 득도하는데, 공심 무가의 ‘남산이 본’이라는 가사로써 생각해보면, 공심 설화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남산’이 ‘방안’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무조가 된 계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나 공심이 사람들에게 득도한 바를 전교하게 되고, 이로써 무조신으로 섬겨지게 되는 것은 비슷하다. 지역별 공심의 출신과 무조신이 되는 과정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공심의 출신과 무조신 과정

지역명 \ 공심 정보	이름	출신	무조 발단	득도 한 곳	무조 계기	비고
충남 공주	아왕 부인	고려·왕녀				무조 발단과 계기는 고려 왕녀가 무를 좋아해서임.
전북 전주	공심현 (公心軒)	조선 윗시대 왕녀	신병	방안	시녀들을 감화시켜 이 시녀들이 배운 기도법을 전파함.	
전남 옥과	공심 (公心)	고려·왕녀	신병	남산	기도와 가무로써 득도한 바를 남도각지에 전교함.	

순천	(공심)	고려·왕녀	신병	남산	중이 불교를 왕녀에게 가르침.	공심이란 이름은 없으나, 설화 내용을 통해 공심임을 알 수 있음.
목포	공심 (公心)	고려·왕녀	왕의 시험	(남산)	왕녀가 남산의 신에게 제사지내 왕의 병을 낫게 함.	남산은 제사지낸 장소
경남 통영	공심 (公心)	고려·왕녀	신병	남산	공심이 낳은 두 아들이 여덟 딸을 팔도에 파견, 공심의 신도를 잇게 함.	

고려 왕녀 출신이 신병을 얻어 남산에서 득도하고, 그 득도한 바를 무당·신도에게 전교하여 무조가 된 공심. 공심 무가란 이러한 무조신 공심에 관한 내용을 ‘공심·절(祭主 등)·남산이 본이다’ 등으로 함축하여 노래한 것을 말한다. 공심을 부른 지역은 주로 문화권이 동일한데, 공심을 무조신으로 인식한 지역이 공심 무조권이다. 공심 무조권에서 공심 무가는 중요한 굿거리 혹은 매 굿거리마다 굿 처음에 가창되고, 공심 무가에 이어 우주론에 대한 거대한 내용을 부른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설이다.

3. 공심 무가의 해석과 새로운 무조신격 문제

이 장에서는 공심 무가를 해석하여 공심을 부른 노랫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는지 기술하고, 공심과 혼란의 여지가 있는 아황여영·바리공주를 비교해서 공심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1) 공심 무가의 해석

공심 무가의 사설은 대략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

로다.’이다. 기존 무가집이나 연구에서 혼란스럽거나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중심으로 공심 무가를 해석하려 한다.

(1) 아왕 의미와 공심의 이름 · 출신

<표 1>에서 ‘공심’ 전에 부르는 ‘아왕 임금아’는 주로 ‘아왕(我王) 또는 아황(娥皇) 임금아’로 채록됨을 보았다. ‘아황’은 아황여영을 말하는 것으로, ‘아왕’과는 다른 의미이다. 무조신 공심을 부를 때에는 ‘아황여영’이 아닌, ‘아왕’ 즉 ‘우리임금아’라고 불러야 공심 무가에 적합하다. ‘아황’과 ‘공심’의 차이점은 ‘2. 무조신으로서의 공심 · 아황여영 · 바리공주의 비교’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공심의 이름이 왜 ‘공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공심을 한자로 나타낸 것을 보면, ‘公心’과 ‘功心’이 있고, 드물게 空心으로 쓴 것도 있다. 채록자의 판단에 의해 공심을 다양한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공심의 이름을 공심이 어떤 성격에 신인지를 고려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公心은 한자 뜻 그대로 ‘공평한 마음, 공적인 마음’이다. 공심이 무조신이 된 후에는 사사로운 마음이나 개인만을 위한 마음가짐인 사심(私心)으로써가 아닌, 무당과 대중들을 위한 공심(公心)으로써 무교를 전교하였으므로, 공심의 公心이란 이름은 틀리다 할 수 없다. 功心 또한 ‘힘쓰는 마음, 공적인 마음’이란 뜻이므로, 공심의 이름에 어울린다 하겠다.

이것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순천의 공심 설화에서는 공심이 남산 집에서 중으로부터 불교를 배웠고, 이것이 무녀의 시작이며, 불(佛)은 대가(大家), 무(巫)는 소가(小家)라 칭하게 되었으며, 불과 무는 본가(本家)와 분가(分家)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심 무가에 이어 불교와 관련된 사설을 부르는 것을 2장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무교와 불교가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

은 맥락에서 공심이란 이름도 불교에 영향으로 ‘空心’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공심(空心)은 공(空)의 도리를 관하는 마음이란 의미로, 『대지도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을 관하면 모든 종류의 번뇌가 다시는 그 마음에 들러붙지 않을 것이다’고 되어 있다.¹⁵⁾ 공심이 무조신으로 득도하는 과정에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수양하여 마음을 비우고, 공심(空心)으로써 득도하였기 때문에 ‘공심’이라 불리게 되었을 수도 있다.

공심 설화로써 공심의 출신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면, 공심 설화에서 공심은 주로 조선 보다 윗시대 즉 고려시대 출신이다. 공심 설화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오랜 시간 동안 변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 글에서 정리한 공심 설화는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에 채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보다 그 이전 시대인 고려시대가 무조신으로서 신격화하는 데에는 더 용이하였을 것이다. 고려 출신의 공심은 공주 신분이다. 무당들이 공심을 자신의 무조신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공심이 보통 신분이 아닌 여인으로서 지위가 높은 공주 신분이어야 했을 것이다. 이는 아키바 다카시가 무조 전설 중 왕녀 전설에서 고려 공심공주와 함께 기술한 중국 이황여영의 이황공주·바리공주의 신분이 높은 것하고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무교에서 공심은 고귀한 신분에 조선이전, 옛 나라의 공주라야 무조신으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절의 의미

앞 장 <표 1>를 참고하면, 채록자 중 ‘절하지요’ 가사에 ‘寺’로 사찰을 표시한 것이 있어 처음에는 절하지요의 절을 불교의 사찰로 인식하였다.

15) 李智冠 편저, 『伽山 佛教大辭林 1』, 1113쪽.

그러나 공심 설화에서는 절로 보냈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공심이 사찰에서 신병이 나왔다면, ‘공심은 남산 절이 본이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이 본이다’라고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절을 사찰로 바꾸면, ‘공심은 사찰하지요’나 ‘공심은 사찰에 주요’가 되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김정업도 기존 채록자가 절에주요·절어지여 등을 ‘절(寺)에 주요’ 즉 ‘사찰에 주요’로 풀이한 것은 엉뚱하다 지적하고, ‘절하지요’를 사찰이 아닌 다른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면서 『묘법연화경산해』와 『두시언해』를 참고하여 절은 ‘원수나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뜻’이며, 지여는 ‘의지하며’라는 의미라 하여 ‘공심을 저러지여¹⁶⁾(절하지요)’를 ‘공심공주는 악마를 항복시키는 영위로운 분이시니 당신께 의지하였으며’라고 해석하였다.¹⁷⁾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납득이 잘 안 된다. 두 자료와 공심 무가의 확실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절하지요’가 ‘저러지여’로만 불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절하지요’의 ‘절’을 ‘사찰’이 아닌 절하여 수행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공심은 신병을 얻어 남산에서 득도하여 무조신이 된 인물이다. 그러므로 득도의 한 방편으로 절을 하였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으로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이 본이다’를 읽었을 때 ‘사찰’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공심 무가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 해석이 필요하다.

공심은 공심 무조권에서 무조신으로 섬겨져 곳 처음에 불리는 중요한 신이다. 그래서 앞 장에서 거론했듯이 경기도당국의 ‘제례주(祭禮主)’와

16) 김정업은 옥과면의 공심 무가를 원형으로 보고 ‘공심은 저러지여(절어지여) 남산은 본이로다’를 해석 대상으로 삼음.

17) 김정업, 『我王賽神禱詞考』, 『한국언어문학회』, 226~227쪽.

남해안별신굿의 ‘제주(祭主)’처럼 노래하였을 때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祭禮’는 한자 뜻 그대로 제사의 예식, ‘主’는 임금, 주인이라는 뜻이므로, ‘공심은 우리 제례(祭禮)에 임금(주인)이요, 남산이 본(本)이다’라고 하였을 때, 무조신으로서의 공심과 왜 공심을 굿 처음에 가창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3) 산 · 남산의 의미

아키비 다카시와 김정업은 공심이 남산에 들어가서 치료한 것과 관련해서 무당과 산악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이 논의를 좀 더 확장하여 공심 무가에서 ‘산’과 ‘남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한다. 우리나라는 산의 비중이 높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고대부터 산을 신격화하여 숭배한 경우가 많았다. 고대건국신화를 보면, 천신(天神)이 산으로 강림하여 나라의 시조신을 낳는데 영향을 주거나 산신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천제(天帝)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太白山)에 하강하여 고조선 시조인 단군을 낳게 되고, 주몽신화에서 천제의 명을 받고 웅심산(熊心山)에 내려온 해모수가 유화와 혼인하여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낳았다. 수로신화에서 가야산의 여산신인 정견모주가 천신 사이에서 수로왕을 낳았다.¹⁸⁾

산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다는 것은 천신과 지모신의 결합, 혹은 천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산의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한자 巫의 뜻과 상통하는데, 巫 위의 ‘一’는 하늘 또는 신령을 표시하는 것이고, 아래의 ‘一’는 땅 또는 인간을 표시하며, 한가운데 ‘丨’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이다.¹⁹⁾ 이러한 것으로써 산과 巫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18) 윤철중, 『建國神話의 神母』, 『人文科學』 제28집, 成均館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98, 163~176쪽.

알 수 있다.

산신은 유교가 유입되면서 호랑이와 함께 있는 노인으로 형상화되었으나, 고대 산신은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이러한 여산신들은 왕족의 시조모 역할을 하였다. 가령 신라, 가락국, 고려 시조왕을 낳은 것은 여산신이다.²⁰⁾ 하늘과 땅 또는 신과 사람을 이어주고, 시조를 낳는 산에서 공심은 육자배기토리권 세습무의 시조로 거듭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남산’일까? 서울 남산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굿당인 ‘국사당(國師堂)’이 있었다. 국사당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4년(1395)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 경대부(卿大夫) 및 선비와 서민들은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남산은 목멱산신을 모셔 목멱신사(木覓神祠)라고도 하였다.²¹⁾ 남산의 국사당은 1925년 일제가 그 아래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지으면서 철폐 위기에 있었다. 그러나 “국사당은 백 년 전에 세운 건물로 많은 무당이 모여 있고 날마다 참배하는 신자도 많을 뿐 아니라 남산 절정의 풍치를 보존함에도 관련되어 있고, 또 동묘와 북묘도 당시로부터 이미 3백여 년 전인 선조대에 황실의 경비로 건축하여 관운장을 봉안하고 국운의 융성을 빌어온 역사적 고적이었다. 따라서 이를 일거에 헐어버리는 것은 고적 보존상으로도 풍치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도 맹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²²⁾ 라는 이유로 총독부는 국사당

19) 김숙희, 「강신무와 세습무의 제의적 특징 비교」,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쪽. 참고로 ‘|’ 양편에는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 무교를 무당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제자로 설명할 수 있겠음.

20) 손정희, 「山神信仰研究: 文獻說話를 中心으로」, 『한국민족문화』 제1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2~3쪽.

21) 이능화 저·서영대 역주, 『조선무속고』, 329~330쪽.

22) 《每日新報》1924. 11. 24, 「철폐의 物議에 上한 關聖廟와 國師堂. 고적보존과 풍치상 관계로 결국은 다른 곳에 이전할 듯」,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조

을 혈지 않고 인왕산으로 옮겼다.

이 자료에 따라 일제강점기에도 서울의 국사당은 많은 무당과 신자들이 드나들던 곳이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남산은 왕과 가까운 곳이자, 왕이 바라보는 앞산에 위치하였고, 그 곳에서 나라를 위한 제사가 이루어져, 무당들의 성소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공심이 부왕(父王)에 의해 남산에 보내졌고, 남산이 본향(本鄉)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남산이 앞산, 풍수지리에서 안산 즉 주작(朱雀)에 해당되어 서울 이외에 어떤 마을에서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산은 북의 현무가 높고 멀리 있는 것에 비해 집터에서 가깝고²³⁾,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삶과 더욱 연관이 있을 듯하다. 남산 즉 앞산은 뒷산이 묘지에 해당되어 북망산 간다는 의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쓰여, 시조신이 탄생하였고, 삶과 관계가 있는 죽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까지 공심 무가의 의미를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공심 무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기존 공심 무가 채록에서 아왕(我王)과 아황(娥皇)을 혼돈하여 썼던 것을 ‘我王’으로, 절하지요·절에 주요 등으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컸던 것을 ‘제례주(祭禮主)’로 해석하였다. 굿 시작할 때 무당이 ‘우리임금이 공심은 우리 제례에 임금(주인)이요, 남산이 본향이 다’라고 하여, 무조신을 부름으로써, 무조신인 공심이 무교 제례(祭禮)에 임금(주인)이라는 것과 공심의 본향을 밝혀 공심 무가가 짧은 사설이나,

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70쪽 재인용.

23) 이은동, 『전통마을에 관한 풍수지리 분석』, 영남대 환경보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쪽.

그 안에 담긴 공심 무조권 세습무들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드러낸다.

〈표 3〉 공심 무가 해석

기존 공심 무가	아왕(我王 혹은 娥皇) 임금아, 공심(公心·功心 등)은 절하지요(절에 주요 등) 남산이 본이로다.
공심 무가 해석	아왕(我王) 임금아, 공심은 제례주(祭禮主)요, 남산이 본(本)이로다. → (우리임금아, 공심은 우리 제례(祭禮)에 임금(주인)이요, 남산이 본향(本鄉)이다.)

2) 무조신으로서 공심·아황여영·바리공주의 비교

여기서는 아황여영·아왕공주의 공심·바리공주, 세 종류의 공주가 같은 성격의 신으로 혼란될 여지가 있어 아황여영과 바리공주를 살펴보고, 이들 두 신과 공심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겠다. 그래서 공심의 성격을 더욱 잘 이해하여 공심 무가가 무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황여영부터 기술하겠다.

공심 무가에서 ‘아왕(我王) 임금’이 ‘아황(娥皇) 임금’으로 채록된 경우가 있어 공심 무가의 아왕 임금과 아황여영이 같은 신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아황여영과 공심은 다른 종류의 신이다.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은 요(堯) 임금의 딸로, 요임금은 두 딸을 순 임금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두 공주는 순임금이 창오(蒼梧)에서 죽자 상수(湘水)에 빠져 죽어 상군(湘君) 곧 상수의 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들이다.²⁴⁾ 따라서 아황여영과 공심은 설화 내용이 다르다. 또한, 아황여영과 공심의 각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신은 계통이 다르다. 아황여영의 아황공주는 중국 계통

24) 아황여영에 관한 가사가 판소리 사설에서도 보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심청가 악보집』, 한국예술종합학교, 2003, 172쪽.

이고, 공심의 아왕공주는 고려 계통이다.

아황여영은 <그림 1>의 ㉠로 표시한 것처럼 서울과 오산에서 무조신으로 모신 내용이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上』의 경성 열두거리 중 <창부>에서 ‘무당의 조종(祖宗)은 아황여영’이라는 가사가 있다.²⁵⁾ 그리고 오산에서는 아황여영 설화가 채집됐는데, 그 내용은 ‘아황여영은 요(堯)왕의 공주이지만,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여 재액을 막아주었고, 공주의 기도가 항상 영험하였으므로 후대 사람이 이것을 흉내 내어 대대로 무업을 하는 일이 생겼고, 공주를 무조로서 모시게 됐으며, 이 지방의 무제(巫祭)에서는 반드시 먼저 ‘이 곳이 뉘 곳이나, 아왕녀왕의 곳이로다’라고 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⁶⁾ 실제로 오산 열두거리 중 <데석(帝釋)>에서 ‘이곳이 뉘곳이나, 아황여영(娥皇女英) 곳이로다.’는 가사가 보인다.²⁷⁾ 이 상과 같이 서울과 오산이 공심 무조권에 포함되는 지역이면서,²⁸⁾ 아황여영을 무조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공심 무가를 부르나 아황여영 무조권에도 속하며, 점차 아래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공심 무조권이 강해지고 아황여영을 무조신으로 삼는 지역을 찾기 어렵다.

<바리공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구송되는데, 죽은 망자를 위한 사령제(死靈祭)에서만 불리며, 서사무가로 그 내용이 길다. 이에 비해 공심 무가는 서남부에서 노래되고, 굿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 곳에서 시작

25)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上』, 78쪽.

26)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下』, 15쪽. 경기도 오산의 아황여영 설화는 아키바 다카시가 경기도 오산의 무부 김종만으로부터 채록한 것임.

27)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上』, 90쪽.

28) 오산 같은 경우는 국립국악원 『경기도당굿』에서 경기도당굿이 안성·수원·오산 등 한강 이남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행해졌음을 서술하고 있어 오산도 공심 무조권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경기 도당굿』 제30집, 국립국악원, 1998, 14쪽.

할 때 짧게 부른다.

바리공주의 성격을 알기 위해 바리공주가 부친에게 받은 신직(神職)을 알아보겠다. 서울에서는 무신(巫神)²⁹⁾과 인도국왕 보살이 됐다는 내용이 있고,³⁰⁾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제칠 태산대왕이 전라남도 고흥에서는 오구시루를 물려받았다는 내용이 있다.³¹⁾ 신직을 받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가령 부안의 『줄포무악』에서는 신이 되었다는 내용이 없다. 홍태한은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양상』에서 전라 지역 바리공주에 대해 ‘다른 지역의 무가권에 비해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여주는 신의 일대기로서의 성격도 매우 약하며, 신격 좌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³²⁾ 북한 지역에서는 바리공주가 끝에 죽으며, 동해안에서는 영혼을 저승 극락으로 보내는 일을 맡거나³³⁾, 직녀성이 된다.³⁴⁾ 안동에서는 영혼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신이 된다.³⁵⁾ 흔히 바리공주는 무조신으로만 알려져 무조신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무조신 이외에 다양한 신으로 좌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바리공주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는 사령제에서만 바리공주를 노래한다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바리공주가 사람의

29) 『조선무속의 연구』에서 바리공주는 ‘만신(萬神)의 인위왕(人爲王)이 되겠다’고 한다. 저자는 만신의 인위왕이란 무녀의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44·366쪽.

30) 김태곤, 『한국무가집 1』, 84쪽.

31) 김태곤, 『한국무가집 4』, 집문당, 1980, 241-242쪽.

32) 홍태한,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양상』, 『한국무속학』 제3집, 한국무속학회, 2001, 125쪽.

33) 김태곤, 『한국무가집 4』, 235쪽.

34) 김현선,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 295쪽.

35) 김태곤, 『한국무가집 4』, 237쪽.

죽음을 관리하는 신인 오구신의 신직을 부여받기도 한다. 따라서 바리공주는 현세계 보다는 저승세계와 관계가 더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공심은 저승세계와는 관계가 미비하며, 상대적으로 현세계와 관련 있다. 이것은 바리공주와 공심의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바리공주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재생(再生)의 기능을 하며, 공심은 득도한 무교를 무당들에게 전파한 전교(傳敎)의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바리공주와 공심을 비교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바리공주와 공심의 차이점

신 종류 구분	바리공주	공심
전승지역	전국(제주도 제외)	서남부 중심
굿 종류	넋굿[死靈祭]	제수굿, 넋굿, 마을굿 등
구송방식	서사무가	초암·관용구
신직	무조신 이외에 다양한 신	무조신
주관	저승 세계	현세 세계
기능	재생(再生)	전교(傳敎)

공심은 무조신으로서 앞 시대의 높은 신분이며, 무당·신도들을 위한 공적이고, 공평한 마음과空心으로, 하늘과 땅 혹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고 시조신을 낳는 산이자 우리의 삶과 밀접한 앞산 즉 남산에서 득도하여 이를 무당들에게 전교하였다. 그리하여 공심은 한국서남부 무당들에게 그들 제례(祭禮)에 임금(主人)이 된 것이다. 이렇듯 공심 무가에는 간단한 사설 안에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공심 무가의 특징은 바리공주와의 비교로써 알아보았다. 공심과 바리공주에 관한 무가는 신에 대한 설명이고,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신을

청배하며, 본을 푸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구송방식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라고 하면, 바리공주처럼 서사무가 형태로 구송되는 무가를 말한다. 서사무가의 본풀이는 바리공주와 같이 특정한 곳거리에서 특정한 기능 및 목적을 위해 부른다. 예를 들어 바리공주는 사령제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노래한다. 그러나 공심 무가는 공심 무조권에서 본격적인 곳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조신에게 곳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함으로, 곳거리 종류와 관계없이 곳 초압에 간단하게 구송하는 것이다. 무조신에게 곳 시작을 알리는 것은 이 곳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으로, 곳이 무사히 잘 연행되길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공심 무가를 곳 처음에 부르는 데에는 사제자가 무조신 공심을 부름으로 해서 존귀하고 대단한 신이 우리의 임금이고, 그 전교를 받아 무조신을 잇는 사제자도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는 기능도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대중에게 무당이 중요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무당 자신은 곳을 연행함에 있어 자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공심 무가에서 공심의 본향을 노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의 내력담을 푸는 서사무가의 본풀이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공심의 본향인 남산은 공심이 무조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으로, 공심이 무조신으로서의 시작이자, 공심에게 전수받은 무교의 시초로서 그것으로부터 무당들의 제의가 시작된 것이므로 공심의 본향을 밝히면서 곳이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 또한 공심 무가를 곳 초압에 노래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논하였듯이 공심은 공심무조권 무당들에게 의미가 큰 중요한 무조신이다. 그동안 공심이 무조신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무조신을 거론할 때 공심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굿을 시작할 때 ‘아왕 임금아, 공심은 절하지요 남산은 본이로다’를 불러 주목된다. 아왕 임금은 이름이 공심으로, 공심은 무당들의 무조신(巫祖神)이다. 공심을 굿 시작할 때 부르는 것은 공심 무조권에서 공심을 무조신으로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교(巫敎)에서 일반적으로 무조신하면, 내륙의 바리공주나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를 거론한다. 이에 비해 공심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고, 공심 무가에 대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심을 부른 노랫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심 무가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기존 무조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공심을 부르는 지역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해당하는 서부지역과 통영·거제에 이르는 남부지역이다. 공심 무조권은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육자배기토리권에 속하는 세습무이다. 설화를 통해 공심이 고려 출신 왕녀이고, 신병으로 인해 남산에서 득도하게 되었으며, 그 득도한 바를 무당·신도에게 전교하여 무조신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신이 될 수 없는 공심 무조권 세습무에게는 무병을 앓아 무조신이 된 공심을 중요하게 섬겼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조신의 의미는 남달랐을 것이다.

공심 무가는 지역에 따라 사실이 가변적이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무당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부른다. 채록자들은 아왕 임금이는 ‘아왕(我王) 혹은 아황(娥皇)임금아’, 공심은 ‘公心’이나 ‘功心’으로, 절하지요는 ‘절하지요(저라지요·저리지요 등)’와 ‘절에 주요(절의 주요·절이 주요)’, ‘제례주(祭禮主)나 제주(祭主)’ 등으로 기술하였다. 반면 ‘남산은 본이다’는 비교적 유동적이지 않다. 공심 무가를 부르는 굿거리 또한 지역이나 무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로 굿 초반에 노래한다는 것은 비슷하다. 그리고 공심 무가에 이어 공간·시간과 우주·만물 등을 창조한 사설이 나온다. 공심 무가를 굿 처음에 부르고, 공심 무가에 이어 우주론적인 내용을 노래한다는 것에서 공심 무가가 갖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공심 무가 해석은 무가 사설에 담긴 사상·신화·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심 무가의 ‘아왕 임금아’는 ‘아황(娥皇)’이 아닌 ‘아왕(我王)’을 말하는 것이다. 아황(娥皇)은 아황여영에서 온 것으로, 서울·경기에서는 아황여영과 공심이 공존하기 때문에 두 신을 혼돈하여 공심 무가에 ‘아황’이 쓰인 듯하다. 그러나 아황여영과 공심은 유래와 계통이 다르다. 아황여영은 요 임금의 딸로 남편인 순 임금이 죽자 상수(湘水)에 빠져 죽어 상수의 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며, 아황여영의 아황공주는 중국 계통이고, 공심의 아왕공주는 고려 계통이다.

공심의 다양한 한자이름 중 기존 연구자는 옥과면이 원형에 가깝다 여겨 공심 이름을 ‘公心’이라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심의 무조신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公心’·‘功心’·‘空心’ 모두 틀리다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심이 무조신이 된 후에는 사사로운 마음이 아닌, 무당과 신도들을 위한 ‘공적이고, 공평한, 힘쓰는 마음’으로 무교를 전교하였으므로, ‘公心’이나 ‘功心’ 모두 공심 이름에 적합하다. 그리고 ‘空心’이란 이름 역시 무교와 불교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불교적인 수양 방법인 공심(空心)으로써 득도하여 ‘空心’이라 불린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공심이 고려 출신 왕녀인 이유는 공심이 무조신으로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시대가 아닌 앞 시대의 인물이자, 아황공주나 바리공주처럼 여성으로써 지위가 높은 공주이어야 했을 것이다.

공심 무가의 ‘절하지요’는 무가집에서의 ‘寺’로 기술하여 ‘사찰하지요’ ‘사찰에 주요’로 되어 공심 무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

서 경기도당곳이나 남해안별신곳에서처럼 ‘제례주(祭禮主)’라고 하여 ‘공심은 제례(祭禮)에 임금(주인)이요’라고 해석했을 때 무조신으로서의 공심이 잘 드러난다. 아마도 제례주(祭禮主)가 와전되어 ‘절하지요(저러지요 · 저러지요 등)’와 ‘절에 주요(절의 주요 · 절이 주요), 제저 등으로 불린 것이 아닌가 한다.

‘남산은 본이다’에서 남산은 무조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본향이 된 곳이다. ‘산’은 고대신화에서 하늘과 땅, 천신과 지모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巫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하고도 통하여, 산과巫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신화 속 산신은 여성이 많은데, 대부분 왕족의 시조를 낳는 여산신이다. 따라서 공심이 산에서 무조신이 된 것은 무교와 산이 밀접하고, 산신이 시조를 탄생시킨 것에서 기인한다.

‘남산’은 서울 남산에 대표적 굿당인 ‘국사당’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 남산은 집터에서 가까운 앞산으로서 북쪽의 뒷산 보다 삶이 더 묻어난다. 아마도 시조신이 탄생하고, 삶과 관계가 있는 남산이 죽었을 때 북망산 간다는 뒷산의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지금까지 논한 것을 토대로 공심 무가를 해석하면, ‘아왕(我王) 임금아, 공심은 제례주(祭禮主)요, 남산이 본(本)이로다.’ 즉 ‘우리임금아, 공심은 우리 제례(祭禮)에 임금(주인)이요, 남산이 본향(本鄉)이다.’라고 이해된다.

그동안 무조신으로 잘 알려진 바리공주와의 비교를 통해 공심의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 바리공주는 주로 사령제에서 불리고, 무조신 이외에 오구신, 직녀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저승세계를 주관하며 재생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오구신의 성격이 많이 보인다. 반면, 공심은 무조신으로서 굿 초입에 나타나고, 현세세계를 주관하며 전교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무조신의 모습으로만 등장한다.

한국 서남부 무교에서 무조신 공심을 굿 처음 시작할 때 노래하여 의식의 중요성을 더하고, 무조신을 부름으로 해서 무교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공심 무기는 신에게 굿 하는 현재의 공간·시대를 고할 때 무조신 공심의 내력부터 불러 무교의 역사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동안 공심 무기를 관용구나 허두(虛頭)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나, 여러 의미가 함축된 공심 무기는 이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서남부 지역에서 실질적인 무조신은 공심이었고, 그 지역에서 공심이 무조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 연구에서 무조신하면 바리공주를 떠올리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문제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경기 도당굿』 제30집, 국립국악원, 1998, 1~201쪽.
-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진도씻김굿』 제34집, 국립국악원, 2003, 1~252쪽.
- 김길상, 『불교대사전』, 흥법원, 1998, 1~2908쪽.
- 김만석, 「전남 동남부 지역의 무속음악 考: 여수 영당풍어제 및 씻김굿과 진도 씻김굿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7집, 민속학회, 2000, 325~374쪽.
-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제11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59~82쪽.
- 김숙희, 「강신무와 세습무의 제의적 특징 비교」,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5쪽.
- 김선풍, 『남해안별신굿: 신가·가면극·인형극』, 박이정, 1997, 1~352쪽.
- 김정엽, 「무조이왕공주고: 옥과 성황당의 연기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7집, 한국민속학회, 1974, 67~75쪽.
- _____, 「아왕새신도사고(我王賽神禱詞考)」, 『한국언어문학』 13권, 한국언어문학회, 1975, 221~231쪽.
- 김태곤, 『한국무가집 1』, 집문당, 1971, 1~392쪽.
- _____, 『한국무가집 2』, 집문당, 1971, 1~340쪽.
- _____,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78, 1~414쪽.
- _____, 『한국무가집 4』, 집문당, 1980, 1~276쪽.
- 김현선,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 월인, 2006, 1~345쪽.
- 문화재관리국, 「줄포무악」, 『중요무형문화재 종합조사보고서』 제11집, 문화재관리국, 1970, 395~645쪽.
- 박경신, 『울산지방무가자료집 1권』,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1~601쪽.
- 박주언 편집,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20 진도 단골 채정례의 한평생: 에이 짠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 뿌리깊은 나무, 1991, 1~184쪽.
- 손정희, 「山神信仰研究: 文獻說話를 中心으로」, 『한국민족문화』 1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1~34쪽.
-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저·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29~47쪽.
- 윤철중, 「建國神話의 神母」, 『人文科學』 제28집, 成均館大學校人文科學研究

- 所, 1998, 163~176쪽.
- 이경엽, 『(국의 현장에서 본)씻김굿 무가: 순천 씻김굿을 중심으로』, 박이정, 2000, 1~446쪽.
- 이능화 저·서영대 역, 『조선무속고』, 창비, 2008, 1~706쪽.
- 이보형, 「무악장단고: 전북 당골굿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33~48쪽.
- 이영금, 『전북 씻김굿: 전금순의 무가』, 민속원, 2007, 1~352쪽.
- 이은동, 「전통마을에 관한 풍수지리 분석」,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10쪽.
- 이소라, 「치리섬 별신제」, 『문화재』 제17호, 문화재관리국, 1984, 187~217쪽.
- 이지관 편저, 『伽山 佛教大辭林 12』, 伽山佛敎文化硏究院, 2010, 1~1383쪽.
- 적송지성·추엽룡,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조선총독부, 1937·38.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동문선, 1991, 1~394·499쪽.
- 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1~357쪽.
- 최길성, 『한국무속지 1: 전남.전북.경남 편』, 아세아문화사, 1992, 1~298쪽.
- _____, 『한국무속지 2: 경북.강원.제주.서울.황해도 편』, 아세아문화사, 1992, 1~382쪽.
- 하주성, 『경기도당국의 무가』, 경기문화재단, 2000, 1~369쪽.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심청가 악보집』, 한국예술종합학교, 2003, 1~221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1-6: 京畿道 安城郡 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1~918쪽.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5-4: 全羅北道 群山市·沃溝郡 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1~1152쪽.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6-5: 全羅南道 海南郡 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1~1152쪽.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6-6: 全羅南道 新安郡篇(1)』,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1~841쪽.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6-12: 全羅南道 寶城郡 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1~1060쪽.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9-1: 濟州道 北濟州郡 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1~418쪽.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969쪽.

홍태한,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양상」, 『한국무속학』 제3집, 한국무속학회, 2001, 117~136쪽.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s of the Lyrics about Gongshim, the Ancestry
God of Female Shamans, in Shamanic Music

Im, Ni-na

Some of the shamanic music saseols grab attention by starting every gut with "Queen Awang, Gongshim, takes a bow. Mt. Nam is the origin"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Queen Awang is named Gongshim, who is the ancestry god of female shamans. Gongshim is called out at the beginning of a gut or every geori, which indicates that people placed importance on Gongshim as the ancestry god of female shamans in the regions where she was sung. In shamanism, however, the ancestry god of female shamans usually refers to Princess Bari from inland regions or Three Brothers of Chogongbonpuri from Jeju Island. Compared to them, Gongshim has been relatively less highlighted. Thus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lyrics calling out Gongshim and examine the meanings of the lyrics, the symbolism of Gongshim, and the effects of calling her out.

Chapter 2 marked the scope of Gongshim's influence as the ancestry god of female shamans on a map and arranged the stories of shamanic songs for Gongshim in a table. According to the Gongshim tale recorded in Chungnam, Jeonbuk, Jeonnam, and Gyeongnam, Gongshim, a Goryeo princess, develops a mental disease and is moved to Mt. Nam, where she learns prayers, songs and dances required for the shamanist practice. After leaving the mountain, she spreads what she has fulfilled and becomes the ancestry god of female shamans. In some villages, she would be worshiped as the village deity. Thus female shamans started to sing "Queen Awang, Gongshim, takes a bow. Mt. Nam is the origin."

In Chapter 3, the investigator interpreted "Queen Awang, Gongshim, takes a bow. Mt. Nam is the origin" as "Our ancestry god, Gongshim was

born in a Buddhist temple, and Mt. Nam is her origin place” based on the Gongshim shamanic song of each area within her influential scope and the Gongshim tales of some regions. The lyrics about Gongshim demonstrate the history of shamanism and grant legitimacy to it. They should be understood to contain more meanings rather than as common phrases or opening words.

Key Words shamanic song, Gongshim, Barigongju, shamanic god.

논문투고일 : 2013. 04. 15

심사완료일 : 2013. 06. 01

게재확정일 : 2013. 06. 02